

STRATEGY 21

통권42호 Vol. 20, No.2, Winter 2017

일본 방위전략의 공세적 변화가 한국 해군에 주는 전략적 함의

- 일본 ‘水陸機動團’ 창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정 광 호*

I. 서론

II. 일본 방위전략의 공세적 변화: 동적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으로의 전환

1.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변화: 기존 방위정책 변화 추이
2.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변화

III. 수륙기동단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일본 수륙기동단의 모체: 육·해군 상륙전부대
2. 현대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

IV.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한국해군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

V. 결론

* 해군소령, 군사전략학 박사, 해본 기참부 무기정책과 임무계획담당

I. 서론

2012년 저자가 일본 방위대를 방문했을 때, 한 방위대 생도가 한국의 해병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한국 해병대의 규모, 역할, 조직 등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왜 이와 같은 관심을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그 생도는 섬이 많은 일본은 해병대가 없어서 주변의 위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2013년 일본은 방위계획대장에서 2018년 창설을 목표로 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창설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2017년 3월에 해병대를 10만 명까지 증원 예정임을 발표했다.¹⁾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28,000명의 해병대를 6,000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똑같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에서 일본과 중국은 해병대를 창설 및 증원 시킬 예정이고 이에 반해 한국은 해병대를 감축 예정이다. 전략적 관점의 차이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작으로 일본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탈냉전 이후, 일본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국가전략을 모색하면서 대외 정책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후 지속되었던 ‘전수 방위(傳受防衛)’ 원칙은 변화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과거 집단적 자위권을 제약했던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 논의의 구체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²⁾되는 등의 제도적인 면에서도 방위안보정책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2012년 일본은 아베정권의 등장 이후, 아베노믹스로 경제력 회복에 성공하면서 그 원동력으로 우경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³⁾ 구체적인 조치

1) 중국은 1980년 5월 5일 하이난(海南)섬 우즈산(五指山)시에서 해병대를 처음으로 창설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지는 “중은 향후 해병대를 6개 여단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해군 병력도 현재 23만 5,000명에서 15% 증원한 30만 명 규모로 증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군, 韓·日·대만 상륙가능 해병대창설…북해·동해함대산하,” 『연합뉴스』 (2017. 4. 4).

2) 내각부의 외청 조직으로 있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각의에 독자적인 안전을 제출할 수 있을 뿐아니라 독립부처로서 예산 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위상이 강화됨. 이에 대해 중국은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사전 초석이며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 『세계일보』 (2007.1.10).

3) 제2기 아베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과제는 “오랜 시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일본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Jonathan Tepperman, “Japan is Back: A Conversations with Shinzo Abe,” *Foreign Affairs*(July/August, 2013), p.2. 이후 일본경제가 회복됨과 동시에 2013년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거두고 양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자, 역사 및 영토문제

들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미일동맹 강화·재편, 자위대의 해외파견, 무기수출 3원칙의 폐기 등을 진행하면서 ‘전후 체제’를 규정하는 기본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⁴⁾ 특히, 최근 중국의 해양력 강화 및 해양진출에 대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재조정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변국인 인도,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여 해양에서 영유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⁵⁾

특히, 그 동안 합법적인 군사력 건설에 걸림돌이 되었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헌법 작성의 당사자인 미국의 동의와 지지까지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한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건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⁶⁾ 헌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전력강화가 논의되는 부분이 해양투사전력 부분이며, 그 중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일본 자위대의 수륙기동단 창설이다. 변화된 일본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핵심은 주변국들과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 도서탈환 작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륙전력 건설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상륙전력은 그 성격이 공격적이고 기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

수륙기동단의 역할은 일반적인 군사력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해양 전략의 세력투사 부분을 주 임무로 수행하기 때문에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과거 일본 내에서 창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또한, 전수방위원칙을 표명해온 일본에서는 공격성을 내포하는 해병대 전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이었다. 2002년 낙도(落島: 일본 표현은 육지 등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의 의미) 방위를 위해 사세보에 1,000명 규모의 서남방면 보통과 연대가 창설되었지만, 수륙기동단의 불필요 인식으로 이 부대는 상륙작전이 아니라 침투 및 정찰 목적에 국한되어 운용되었다.⁷⁾

그러나 최근 일본과 중국 간 센카쿠 열도의 갈등과 연계하여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에 의존하지 않고 도서를 방위할 수 있는 자체능력의 필요성이 제

와 같은 기준에 구상했던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4) 『중앙일보』(2013.12.18.); 『연합뉴스』(2014.7.1).
- 5) 2017년 1월, 日 정부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제도에서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통합방위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고, 3월말에는 동중국해에서 난세이제도의 방어수준 강화를 위해 큐슈 남단~대만 동쪽(총 1,200km)간 섬들을 지키는 ‘美·日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 예정인 것으로 발표했다. 『讀賣新聞』(2017.1.6).
- 6) “美, ‘日 집단적 자위권’ 손 들어주다.” 『조선일보』(2013.10.4).
- 7)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제30권 제1호(2014), p.109.

기되었고, 현재는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륙기동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⁸⁾ 아베 정권은 이 같은 구상을 이미 2012년 선거공약에 반영시켰고 집권 이후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수륙기동단 창설을 위해 미 해병대와 도서탈환훈련 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상륙전력까지 구매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⁹⁾ 일본이 방위백서에 명시하고 있는 수륙기동단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전력 증강 계획은 향후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일본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서」, 「방위계획대강 2013」,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 등 안보 3종 문서를 발표했다.¹⁰⁾ 이 문서들은 아베 정부가 차후 추진하려는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마스터 플랜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서에 나타난 변화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차례의 아베 정권 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보통국가화’라는 일본의 국가진로는 동북아 지역질서 및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공격·방어이론에서 공격·방어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 지리, 군대규모, 군대성격, 군대배치, 애국심, 자원추출능력, 외교적 행동패턴 등이 있다.¹¹⁾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수륙기동단의 정체성은 전력의 투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이다. 즉

-
- 8) 2013년에 일본정부는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 고조되자, 도서가 점령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 및 재탈환하기 위해 해병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2014년에 센카쿠가 속한 육상자위대 서부 방면대(오키나와, 규슈 관할) 소속 부대 중에 일부를 ‘준비부대’로 정하고 해병대를 발족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航母·해병대·로켓발사... 아베의 일본, 재무장 가속화,” 『조선일보』 (2013.8.22).
- 9) “일본 ‘해병대역할’ 수륙기동단 3천명 규모로 창설,” 『연합뉴스』 (2016.10.27).
- 10)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외교와 국방분야의 포괄적 지침을 담은 최상위 문서라면,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방위정책의 기본방침과 방위력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11) 공격방어이론(offense-defense theory) 또는 공격방어균형(offense-defense balance)에서 공격이 우세하다면 국가들은 정복이 용이하다고 인식하여 기회주의적 팽창을 시도하는 반면, 방어가 우세하다면 전쟁을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격 우세란 상대의 군대를 파괴하고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자국의 군대와 영토를 지키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며, 반대로 방어우세란 상대의 것을 파괴하고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방어이론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Jack S. Levy(1984), “The Offensive/Defensive Balance of Military Technolog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8. Robert Jervis(1978), “Cooperation under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Stephen Van Evera(1998),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22(4) 참조.

방어적 성격보다는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조직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륙기동단 창설은 공격·방어균형의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 방위전략이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수륙기동단 창설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 일본이 해병대와 같은 부대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일본 방위전략의 공세적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수륙기동단의 과거 근원적인 정체성부터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공격방어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과연 현재 한국 해군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일본 방위전략의 공세적 변화: 통합기동방위력으로서의 전환

1.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변화: 기존 방위정책 변화 추이

일본은 외교안보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제기되었을 시 「방위계획대강」이라는 전략문서를 발표하여 국가가 나가야 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비해왔다. 이는 미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외교 및 국방, 경제정책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군사 분야의 최상위 문서로서 국방전반에 걸친 정책을 포함한 「국방기본정책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통합한 성격을 가진 문서라고 볼 수 있다.¹²⁾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독자적인 방위력 및 국제적 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방위정책을 담고 있는 방위계획대강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전후 총 5번 개정되었고, 개정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그만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과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일본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 1>은 일본 방위계획대강의 주요 요점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12) 김훈상, 『패러다임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지식과 감성, 2013), pp.285-286.

〈표 1〉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의 주요 요점 비교¹³⁾

| 구분 | 방위계획대강 1976 | 방위계획대강 1995 | 방위계획대강 2004 | 방위계획대강 2010 | 방위계획대강 2013 |
|----------------------|--|----------------------------|---------------------------|-------------------------------------|--------------------------|
| 안보 환경 평가 | - 냉전 시기 - 한반도 긴장지속 - 주변국가 군사력 증강 | 냉전 종료 지역분쟁 핵과 미사일 확산 | 북한 위협 중국 주의 | 글로벌 위협 북한 불안정 요인 중국 동향 주의 | 글로벌 위협 북한 위협 중국 위협 |
| 일본 능력 구비 개념 | 적절한 방위력 구비 | 기본적 방위력 합리화, 효율화 등 | 기본적 방위력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 기본적 방위력 개념 폐기 동적 방위력 개념 제시 | 통합기동방위 력 개념 제시 |

전후 일본은 본토 방위에 국한된 ‘전수방위(傳受防衛)’ 원칙이 방위안보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1995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방위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방위계획대강부터 중국과 북한이 실명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2013년 방위계획대강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8월, 아베 총리는 방위상에게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환경의 엄중함이 커지고 있다”며 방위계획대강 정비를 검토 지시했다. 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요인에 대한 서술이 더욱더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위협인식 변화와 더불어 자위대가 증강해야 할 군사력의 기준 개념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종전의 대강에서는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의미하는 ‘기본적 방위력’ 개념이 자위대 군사력의 지표로 제시되었으나, 2004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본적 방위력’에 추가하여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일·중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의 위협론은 실체가 되었다.¹⁴⁾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응한 방위력 강화였으며, 이를 위한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¹⁵⁾ ‘기본적 방위력’ 개념이 폐기되면서 ‘동적 방위력’¹⁶⁾ 개념으로

13) 국방정보본부, 『2016년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6), p.171.

14) 정광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토분쟁: C.R. Mitchell의 분쟁구조 이론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學論集』 제69호 2권(2013. 6), pp.138-144.

15) 손경호, “일본의 2010방위계획대강 개정의 방향과 함의,” 『한일군사문화연구』vol.16 (2013), pp.83-87.

16) 2010 방위계획대강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한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카하시 스키오 연구원은 동적

대체된 것이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한 「방위계획대강 2013」과 그 상위문서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서」 그리고 방위계획대강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제시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를 공표했다. 이 세 문서의 공표가치는 향후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주변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문서라는 것이다.¹⁷⁾

<표 2> 일본의 안보 3종 문서 내용 요약¹⁸⁾

| 국가안보보장전략 | 방위계획대강(2013) |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 기여 - 중국 등 신흥국 대두로 인한 힘의 균형변화에 대응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큰 위협으로 대두 - 중국은 영해·영공 침입,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동중국·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 해상교통로 주변국에 대한 해상보안능력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국방비를 증가하고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명성이 불충분 - 북한의 미사일 능력향상에 따른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 향상 검토 -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지휘통신 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 기동방위능력 구축 - 섬에 대한 공격에 대응 - 방위력의 질과 양을 함께 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륙기동단(해병대) 편성, 이지스함 2척 추가 배치 - 조기경보기 4기 도입, 공중급유기 3기 도입 -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 수륙양용차량 52대, 무인정찰기 3기 도입 |

2013 방위계획대강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안전에 대해 중대하면서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중국 해·공군의 태평

방위력 개념이 평시의 억제, 유사시의 대처 기능에 더해 테러리즘이나 해적 등의 회색지대(grey zone)적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력 즉 정찰감시능력, 신속기동능력, 타국과의 연합작전능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A View from Jap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2012.7.5).

17)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게 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는 일본을 경제력 및 기술력을 가진 경제대국, 해양국가, 그리고 평화국가로서 규정하면서, 향후 일본이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있어 주요한 행위자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제한다. "日 NSS·국가안보전략, 힘으로 맞서겠다는 자세 명확히," 『아사히 신문』 (2016.12.18).

18) "日, 중국·북한 구실로 '안보 3중세트' 확정," 『조선일보』 (2013.12.13).

양 진출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의 행위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는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축하고, 미일동맹에 관해서는 억제력 및 대처력의 강화를, 아·태지역 내의 협력에 관해서는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 등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각각 방위정책 상의 과제로 제기하였다.

여기서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은 종전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되었던 ‘동적방위력’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위대의 통합적 운용능력을 강조하고, 고정적인 지역배비가 아닌 각 자위대의 기동적 배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자위대의 육·해·공 자위관 요원의 상호 배치, 육상자위대 주요 부대의 기동부대화, 수륙기동단 창설, 수륙양용작전 및 특수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운용부대의 보유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기하였다.¹⁹⁾

2.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변화

아래 <표 3>에 의하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병력면에서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도 열세인 것으로 보이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합정 수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비해 소수인 것으로 비춰진다.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작전기도 중국이나 북한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열세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 가진 해병대 전력을 일본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도 부각되고 있다.

<표 3> 아·태지역 각국 군사력 비교²⁰⁾

| 구분 | 러시아(극동) | 중국 | 북한 | 한국 | 일본 | 주일(한)미군 |
|----|-----------------|-----------------|----------------|----------------|----------------|------------------------------|
| 육군 | 8만명 | 160만명 해병대 1만 | 100만 | 52만 해병대2.7만 | 14만 | 1.9만 (1.7만) |
| 해군 | 합정 250척 55만톤 | 950척 134.1만톤 | 650척 10.7만톤 | 190척 18.1만톤 | 143척 44.8만톤 | 7함대 20척 33.6만톤 함재60 |
| 공군 | 작전기 400기 | 2040기 | 620기 | 570기 | 430기 | 140기 (60기) |

19) 박영준, “일본 군사력의 평가: ‘동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서의 변화,” 『新亞細亞』 22권 2호(2015), p.66.

20) 『朝日新聞』 (2016.8.30).

사실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일본 스스로가 표명한 비핵 3원칙이나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에 따라 핵무기,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지 않아, 전략무기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일본 내에서 핵무장론이나 탄도미사일 개발론이 부분적으로 제기된 바는 있으나, 아베 정부도 비핵 3원칙과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의 금기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전략무기의 절대 열세를 미일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전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육해공 자위대의 재래식 전력에 국한해 보면 아래 <표 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적으로는 열세이지만, 특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2010, 2013 방위계획대강 자위대 전력비교²¹⁾

| 구 분 | | 방위계획대강 2010 | 방위계획대강 2013 | |
|-----|-------------------------------|---------------------------------|--|---|
| 육상 | 편성정수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 수 | 15만9천명 15만1천명 약 8천명 | 15만9천명 15만1천명 8천명 | |
| | 기간부대 | 기동운용부대 | 중앙즉응집단 1개 기갑사단 | 3개 기동사단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수륙기동단 1개 헬리콥터단 |
| | | 지역배비부대 | 8개 사단 6개 여단 | 5개 사단 2개 여단 |
| | | 지대함유도탄부대 | 5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 5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
| | | 지대공유도탄부대 | 8개 고사특과군/연대 | 7개 고사특과군/연대 |
| 해상 | 기간부대 | 호위함부대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초계기부대 | 4개 호위대군(8개 호위대) 5개 호위대 6개 호위대 6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대 | |
| | 주요장비 | 호위함(이지스함) 잠수함 작전용항공기 | 47척(6척) 16척 약 170기 | |

21) 국방정보본부(2016), p.173.

| 구 분 | | 방위계획대강 2010 | 방위계획대강 2013 | |
|------|-------------|--------------|------------------------------------|----------------------------|
| 항공 | 기간부대 | 항공경계관제부대 |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2개비행대) | 28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3개비행대) |
| | | 전투기부대 | 12개 비행대 | 13개 비행대 |
| | | 항공정찰부대 | 1개 비행대 | |
| | | 공중급유수송부대 | 1개 비행대 | 2개 비행대 |
| | | 항공수송부대 | 3개 비행대 | 3개 비행대 |
| | 지대공유도탄부대 | 6개 고사군 | 6개 고사군 | |
| 주요장비 | 작전용항공기(전투기) | 약 340기(260기) | 약 360기(280기) | |

아베 내각이 2013년 12월에 공표한「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현재 지역안보의 위협을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해양진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및 미일동맹의 강화를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동적방위력’ 개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기동방위력’은 자위대의 통합운용 및 기동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을 가정하고, 낙도탈환 능력의 강화를 위한 ‘상륙기동단’의 신설과 투사능력,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를 제시하고 있다.²²⁾

아베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방위예산 증액 및 병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²³⁾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2013」에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에서는 향후 5년간 군사력 증강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위비 규모가 책정되었다. 향후 5년간 방위비로 24조 6700억 엔(약 252조원)으로 지난 5년간 편성한 예산보다 1조 1800억 엔(약 12조원)을 늘렸다. 현재 일본이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부처마다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방위비만큼은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은 방위력 강화에 대한 아베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비지출확대와 보통국가화에 대한 의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영토 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이

22) “일본 방위백서, 아베 집단지위권 ‘홍보용,’” 『연합뉴스』 (2014. 8. 5.); “日 NSS·국가안보전략, 힘으로 맞서겠다는 자세 명확히,” 『아시아 신문』 (2013.12.18).

23) 일본 방위성은 2015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4조8990억 엔(약 47조8064억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보다 2.4% 많다. 일본은 2002년 이후 10년간 방위비를 줄였지만, 2013년부터 국방비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 군사력 증강, 日 내년 국방예산 사상 최대 50조원,” <http://biz.chosun.com/svs/news/> (검색일: 2017.6.30).

동·남중국해에서 국제 법질서와 맞지 않는 주장에 기반하여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자세와 군사 동향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우려 사항” 이라고 기술하면서 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⁴⁾ 2013 방위계획대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의거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가정한 낙도방위 및 탈환 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센카쿠 열도의 방위 및 탈환을 가정하고 이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 능력 강화 및 부대의 신속한 전개와 유연한 운용을 목표로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륙기동단의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 제시된 무기체계의 성격도 중국의 견제가 두드러진다. 낙도방위를 위한 오스프리 17대, 수륙양용차량 52대, 무인정찰기 3기 등을 새로 도입하고, MD 강화를 위해 이지스함 2척의 추가 건조가 대표적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침공 방어를 위해 각 지역에 고정적으로 육상자위대를 배치하고 전차 및 화포 전력을 증강했다. 그러나 일본은 탈냉전 이후부터 육상자위대에 중앙즉응집단의 창설,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대형 수송함 및 잠수함 전력 증강, 항공자위대의 공중급유기 및 스텔스기의 도입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지휘체계 역시 과거 병렬형 지휘체계에서 2006년 이후 합동지휘체계의 성격이 강한 통합막료감부가 설치되면서 각 자위대 병력을 입체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²⁵⁾ 육상자위대의 고정병력 축소와 해상 및 항공자위대의 전력증강과 육상자위대 예하 기동부대인 상륙기동단²⁶⁾의 창설은 변화된 방위력의 구비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동방위력’의 핵심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24) “아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공식 선포,” 『중앙일보』 (2013.12.18).

25) “日, 자위대 육·해·공 통합운영,” 『경향신문』 (2006.3.27).

26) 일본의 2014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에 수륙양용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능을 갖춘 기동부대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육상자위대는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태에 즉시 대응해 실효적이고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기동사단 및 기동여단으로 개편하고 연안감시부대와 경비부대를 새롭게 편성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오키나와 남서지역의 도서지역 부대의 태세 강화와 도서지역에 대한 적의 공격시 해당 도서지역을 상륙, 탈환, 확보하기 위해 수륙기동단을 새롭게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 『2014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4), pp.231-251.

27) 박영준(2014), p.110.

Ⅲ. 수륙기동단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일본 수륙기동단의 모체: 육·해군 상륙전부대

과거에 일본은 특이하게 해군과 육군이 각기 상륙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규모면에서 육군이 상륙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부대의 규모가 컸고, 해군의 상륙전 부대는 해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성격의 부대로 규모는 육군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육군은 대륙지향의 전략문화, 러시아를 주적으로 상정한 전략사고의 고착화를 통해 우수한 상륙부대를 보유하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해군도 거함거포주의와 함대결전사상에 몰입되어 육전대의 독립성이나 정체성 확립은 제한되었다. 즉, 우수한 상륙 전력을 보유했지만 육군과 해군은 상호 공존 및 합동작전 보다는 자신들의 논리, 전략사상에 의해 별도로 운용되었다. 육군과 해군은 군사력을 바다에서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 땅 및 바다에서의 전쟁이 자신들의 진정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편협한 논리에 의해 운용된 일본 육전대는 전쟁 중에 소멸하게 된다.²⁸⁾ 하지만 상륙전 부대는 일본이 열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일본 육·해군의 상륙전부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 일본해군 상륙전부대

최초 일본 해군의 상륙전부대 운용은 1871년(명치 4년) 영국 해병대를 모방하여 창설하였다.²⁹⁾ 이후 1876년(명치 9년)에는 영국식 해병대와 해병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황국해군육전대(皇國海軍陸戰隊)’를 창설하였다. 일본 해군의 육상부대는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들 육상부대

28) Allan R. Millet,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N.Y.: Cambridge Univ. Press, 1998), pp.69-70.

29) 해병대 간부 육성을 위한 해병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각 번(藩)에서 생도들을 모집하였다. 해병은 보병, 포병 두 개의 병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함정에서 근무하면서 함정의 의례에 필요한 위병이나 야포대를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후 사가의 난 진압작전, 대만생변토벌작전, 강화도 사건 등 국내의 다양한 작전에 참여하였다. Seiho Arima, "The Western Influence on Japanese Military Science, Shipbuilding, and Navigation," *Monumenta Nipponica*, Vol. 19, No. 3 (1964), pp.352-379.

들 중 해군 특수상륙군은 상륙작전을 주로 수행하여 해병대라고 불렸다. 경비대와 방비대도 상륙훈련과 해안방어훈련을 받았지만 해군 특수상륙군보다는 임무수행이나 편성에 있어 중요성이 떨어졌다.³⁰⁾

〈표 5〉 일본 육전대 구분

| 형 태 | 부대 성격(규모) |
|----------------|----------------------|
| 특별 육전대(特別 陸戰隊) | 해군 특수상륙군(746~3,251명) |
| 경비대(警備隊) | 경계부대(200~500명) |
| 방비대(防備隊) | 방어부대(200~400명) |
| 통신대(通信隊) | 통신부대(600~1,000명) |

※ 출처: www.star-games.com/exhbits/snf/snalf.html(검색일: 2017.7.23).

1930년대에는 일본 요코스카, 쿠레, 사세보, 마이주루 등에 5개의 육전대가 창설되었다. 각 해군에 위치한 부대들은 경순양함이나 구축함 등의 해군 함정에 편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³¹⁾ 1941년도까지 모든 해군 특수상륙군은 상륙돌격, 해안방어, 대공방어, 상륙과 보병 전술, 공정(空挺) 훈련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태평양전쟁 초기에는 정예부대로 성장하였다.³²⁾

30) 특별 육전대 중 가장 유명한 부대는 상하이 특별 육전대이다. 1927년 국공내전시 중국 국민혁명군이 양쯔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상하이에 거주중인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해지는 상황에 처해지자 일본 파견함대에서 상하이 특별 육전대를 창설하였다. 상하이 외에도 일본은 자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방호하기 위해서 육전대를 경계부대로 파견해 배치시켰다. 또한 오토즈크해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캄차카반도에 스키육전대를 배치하였다. 山口喜代公, 『日本海軍陸戰隊史』(東京: 大新社, 1943), pp.181-184.

31) 해군 특수상륙군의 훈련은 해군의 사병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특히 체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며, 불굴의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는 병사가 육상작전에 제일 적합한 자로 선발되었다. 또한 육상전술을 신속하게 체득할 수 있어야만 했다. 해군 특수상륙군은 상륙작전을 통하여 차후 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해외거주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부대로서의 임무와 치안이 불안정한 곳에 파견되어 치안유지군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1-2개 중대급)로 운용되었으며, 독립된 부대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필요시에 해군에서 편조하여 부대를 운용하였다. Joseph H. Alexander, *Storm Landing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p.19-20.

32) 이 시기에 해군의 지배적인 전략사상은 거함거포주의와 함대결전사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군에서는 태평양전쟁에 임박하여 상륙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임무를 다양화시켰다. 해군 특수상륙군은 약 2,000명의 증강된 대대급 규모로 성장하였고, 무장도 3인치 함포와 곡사포를 포함한 중화기무기로 무장되었다. 임무 수행을 위하여 대대급 규모의 부대들을 2~3개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연합 특수 해군상륙단을 편성하였다. David C. Evans and Mark P. 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n the Japanese Navy, 1887~1941*(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443.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일본 해군의 일부 장교들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상륙군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들의 주장은 해군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³³⁾

일본 해군이 해안에 세력을 투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 가장 결실을 본 것은 수직포위 개념이었다. 해군은 1940년 유럽 전역에서 독일 공정부대의 작전성공을 계기로 수직포위 개념을 발전시켰다. 1940년 말에 ‘시험 1001’의 계획하에 해군 특수상륙군에서 선발된 병사들에게 비밀 공정훈련을 실시하였고,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해군 특수상륙군에 최소 2개의 공정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부대들은 태평양 전쟁 초기에 동인도 제도를 신속하게 정복하기 위한 합동작전에 투입되었다. 한편 이 시기 일본 해군 육전대의 임무는 4가지로 부여되었다. ① 군사작전으로서의 상륙작전 수행이다. 육전대는 남부 태평양의 수많은 도서들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하여 이들을 전진기지화하였다. ② 상륙에 성공한 도서들에 비행기지를 건설하여 차후 항공작전 수행 준비 및 군수지원 기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③ 해외 거주중이거나 억류중인 일본인 구출 작전을 전개하였다. ④ 주요 도서 확보 이후 방어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태평양으로의 미국의 전개를 거부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³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일본 육전대는 대부분이 소대급이나 중개급 등 소규모로 작전을 전개하였고 작전 전개 간 수상함이나 항공 전력에 의한 지원 없이 상륙 기습 형태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상륙작전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하게 장악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상륙작전의 기본 형태로 인식되는 상륙돌격 작전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군 지휘관들이 야간 상륙과 대대급 규모 이상의 적이 방어하고 있지 않은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상륙작전이 소규모로 실시되었고 함포사격이나 항공기의 지원이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전실패 시에는

33) 일본 해군 내에서 상륙전력의 개발과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곳은 해군 전투부의 포술학교에서였다. 포술학교에서는 해군에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상륙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해군군령부, 해군성, 해군대학에 건의하였다. 1940년에 상륙전 경험이 풍부했던 이마이 아키지로 소장은 중부 태평양에서 도서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총참모부에 회장(回章)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 회장에서 40,000~45,000명으로 구성된 상륙군을 창설하여 일본이 점령한 마이크로네시아의 6개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해군의 수뇌부에게 수용되지 못했다. 육군이 지상작전을 통해서 대량의 영토와 물자를 확보하는 것에 전쟁의 수행의 중점을 두고 있었듯이, 해군의 지휘부에서는 오로지 바다에서의 함대결전사상 이외에는 전략적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 David C. Evans and Mark P. Peattie(1997), pp.441-445.

34) 최정준, “일본의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과 수륙기동단 창설의 함의,” 『軍史』제97호(2015.12), pp.359-560.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해안방어 부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노출하였다.

나. 일본육군 상륙전부대

일본 육군은 해군과 별도로 독자적인 상륙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육군과 해군간의 갈등 관계에 따라 상호간 지원·피지원 관계를 통한 합동작전의 시행보다는 육·해군이 각각 자신들에게 편제된 군을 활용하여 독단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다.³⁵⁾ ② 육군은 가상의 적으로 고려했던 러시아와의 전쟁을 염두에 둔 보조전력으로 상륙전부대를 운용했다. 육군은 육상전을 통해 러시아를 괴멸시키는 계획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작전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교두보 확보, 주요 항구 확보, 문자 및 병력 보충, 후방시설 경계 등)으로 상륙전부대를 운용하였다.

이같은 배경 하에서 일본 육군은 해군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상륙전부대를 운용하였다. 일본 육군은 청일전쟁(1894~1895), 대만점령(1895), 의화단의 난(1900), 러일전쟁(1904~1905)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칭타오공략전(靑島攻略戰)과 라오산만(勞山攻略戰)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확보하였다. 이후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남양군도에 대한 점령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³⁶⁾

1918년과 1937년(중일전쟁) 사이에 육군은 동력화 상륙주정을 개발함으로써 해군 상륙지원단의 도움 없이도 신속하게 병력들을 함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륙군을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 공병과 상륙주정단을 조

35) 명치시대 일본군의 창설 직후에 육군과 해군의 모든 업무를 병무성이 통합하여 관장하였으나, 1872년 4월 5일 병무성이 폐지되고 육군성과 해군성이 독자 기관으로서 분할되었다. 일본 육·해군의 대립관계의 원인은 ① 해군과 육군의 전담 임무 상이, ② 육군의 사쓰쵸 세력과 해군의 사쓰마 세력의 대립으로부터 이탈 독립하고자 하는 해군의 요청을 수용함, ③ 당시의 국제정세가 일본해군의 군비확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군을 독립시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 ④ 당시 병무성이 너무 비대해져 다른 여타의 성과 균형을 맞추자는 태정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Stanley L. Falk, "Organization and Military Power: The Japanese High Command in World War II,"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9, No. 4 (Dec., 1961), pp.503-510.

36) 초기 일본군 상륙전 교리의 특징은 ① 상륙군의 안전한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로를 통제함, ② 견고하게 방어중인 적의 중심을 회피하여 방어가 약한 곳을 상륙지점으로 선정, ③ 해군상륙단을 적절한 규모의 공격부대와 같이 편성하여 파견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며 주상륙 준비, ④ 상륙지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속도를 늦추고, 견고하게 구축된 상륙지역은 차후 내륙작전을 위한 발판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山口喜代公(1943), pp.146-147.

직하였다. 그 당시 육군에서는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부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단과 부대들이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되었다. 일본 육군의 일반 참모들은 초기 단계에서 상륙작전은 해상통제권의 장악여부가 작전의 승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함안 이동시 가장 큰 위협은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에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로 상륙작전에 대한 식견이 높았다.

1918년 7월 제5사단은 일본 육군 최초로 독자적인 사단급 규모의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상륙훈련을 참관한 육군 참모총장 우에하라 마사자쿠는 견인되는 목재 바지선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상륙훈련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철제의 자력추진 상륙주정에 관한 연구를 지시하였다.³⁷⁾ 1922년에는 함정에서 곧바로 해안으로 이동하는 육군 독자적인 상륙전 개념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면서 수많은 부대들이 상륙훈련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 당시 일본 육군의 상륙훈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은 일본 육군에게 상륙작전 교리를 입증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상륙부대 조직을 정예화하고 병력과 물자를 취급하며, 다이하츠에 맞추어 현측 크레인을 낮추고 상륙 주정을 들어올리며 전통적이고 오랜 경험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병사들은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일본 육군은 함안이동 간 공중 공격에 노출된 병력 수송선을 적 항공기로부터 보호하는데 관심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상륙작전 기간 중 해군과 항공엄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41년 초에는 ‘C 작전’으로 명명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 일본 육군 제5사단, 18사단 그리고 경계 사단의 독립 대대들이 중국 남부 해안에 일련의 상륙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격리시키고자 하였다. 일본 육군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지점에 다수의 대대들을 동시에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야간 상륙작전 수행능력 그리고 해안에서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 정교한 상륙작전 실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갔다. 이러한 실전 경험을 통해 일본 육군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상륙전 교리를 다음과

37) 다이하츠 상륙정은 1929년에 건조된 것으로, 금속 선체와 디젤 기관으로 설계되었다. 선체 길이는 41~49피트, 속력은 8.5노트로 기동할 수 있었다. 톤수는 10톤으로 70명의 병력, 10필의 군마, 탱크 1대, 혹은 12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적재 능력을 갖추었다. 이보다 적은 톤수인 고하츠는 1927년에 완성되어 5명의 승무원으로 다이하츠의 절반 정도의 적재 능력을 갖추었다. Christina W. Beilstein, *Japanese Naval Vessels at the End of World War II*(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p.86.

같이 발전시켰다. ① 상륙해안에 사전 압도적인 화력을 투입하여 무력화시킨 후에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연합군의 방식이 아닌 기습에 의한 상륙, ② 야간 상륙작전 선호, ③ 적의 주 전력이 방어하는 지점이 아닌 취약한 곳을 상륙지점으로 선정 등이다. 이것은 육·해군 간의 원활한 협조하에 합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교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상륙돌격보다는 기습에 중점을 둔 일본군 교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러시아가 혁명으로 붕괴되면서 동북아의 전략환경이 변화된 후, 일본 육군의 군사전략은 상륙작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미국을 주적으로 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육군이 1930년대에 상륙전을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지라도 육군의 임무는 적의 지상병력을 괴멸시키고, 대규모 영토를 점령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육군이 상륙작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³⁸⁾ 일본 육군은 대륙에서의 지상전 준비에만 집중하였고 태평양에서의 전쟁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환경과 인식의 변화는 기존의 상륙작전 전담 사단들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도록 군 구조를 변화시켰던 것이었다.

2. 현대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

가.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동향

최근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장 2013」,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의 안보문서 3종 세트를 공표하면서 가장 이슈화 되는 것은 일본의 육상자위대에 상륙작전 전담부대의 창설에 관한 내용이다. 2014년 7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서는 일본이 육상자위대에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3,000여명 규모의 상륙작전 임무 수행 부대의 창설을 계획 중이고 이 부대

38) 일본이 러시아의 위협을 미국보다 더 크게 상정했던 것은 만주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북아 역사에서 고구려를 제외하고 만주지역을 점령한 모든 국가는 중국을 지배했다. 즉 만주를 일본이 국력을 증진시켜 나갈 근원지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주는 러시아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부활은 일본에게 만주 지배에 대한 최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었다. George Feifer, *The Battle of Okinawa: The Blood and The Bomb* (Guilford, CT: The Lyons Press, 2000), pp.33-34.

에는 해상, 공중 전력인 상륙돌격장갑차(AAV)와 오스프리(V-22) 등이 포함되어 큐슈(Kyushu)지역이나 난세이(Nansei) 군도를 기지로 할 예정이며 미 해병대와 연합훈련의 기회 확대를 희망한다고 보도했다.³⁹⁾

일본 정부는 수륙기동단 보유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수륙기동단이란 국가에 따라 소속, 규모 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육상작전 및 해상작전 등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통합 보유하고 뛰어난 기동성 및 적응성을 갖춘 부대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해병대이다.⁴⁰⁾ 일본은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방위를 위해 부대의 통합운용 및 기동적인 수송전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육·해·공군 부대 간에 긴밀한 연계와 함께 침공부대를 저지·격파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 도서 탈환을 실시하는 경우도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해병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베는 “이른바 도서방위에 대해 말하자면, 해병대와 같은 기능을 일본이 갖추어 나갈 필요성 역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5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아베답변)는 견해를 표명했다.⁴¹⁾

나. 육상자위대의 상륙작전 전담부대

일본 해병대라고 일컫는 육상자위대 상륙작전 전담부대의 창설목적은 일본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부속도서군을 방어하고 유사시 상륙작전으로 상실된 도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수년간 정기적으로 미·일 공동으로 낙도방어 및 탈환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모체부대는 서부방면대의 보통과 연대(WAIR : Western Army Infantry Regiment)이고 나가사키 사세보항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부대의 병력규모는 소총 중대 3개를 보유한 증강된 경 보병대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⁴²⁾

모체부대에서는 '12년 상륙작전 전담부대 창설 결정 이후 미 해병대와 지속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⁴³⁾ 2012년 8월에는 괌의 테이안에서, 2013년 1

39) “Japan Builds Amphibious Force Modeled on U.S. Marines,”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18, 2014).; www.defensenews.com/article/20140303/DEFREG03/303030024/Repoet-JapanToCreateAmphibiousForceModeledAfterUSMarineCorps.(검색일: 2017.8.1).

40) The US DoD Directive, No.5100.1(August 1, 2002), pp.19-20.

41) 국방정보본부(2016), p.177.

42) 해당 연대 자체가 멀리 떨어진 섬 등의 탈환 등의 목적으로 양성된 660명 수준의 부대였고 미 해병대와 교류가 잦은 부대이다.

43) Goldman Justin, “An Amphibious Capability in Japan’s Self-defense Force: Operationalizing Dynamic Defens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6, No. 4 (Autumn 2013), pp.119-121.

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육상자위대가 미 해병대와 실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2013년 6월에는 미 캘리포니아에서 육·해·공 자위대가 참가하여 미군과의 통합훈련 ‘Dawn Blitz-13’을 실시했다.⁴⁴⁾ 미국의 캘리포니아 팬들턴 기지에서 실시한 훈련에 일본 자위대는 육상자위대 1개 중대, 해상자위대 소속 상륙함 1척, AH-64 및 CH-64 등을 참가시켰다.⁴⁵⁾ 훈련 이후 매년 수회 이상의 연합훈련, 각종 교육 ITX(Integrated Training Exercise)⁴⁶⁾에 참가하고 미 동부해안의 대표적 상륙훈련인 ‘Bold Aligator-14’ 훈련에 수명의 참관단이 파견되었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규모는 인원은 약 3,000여명 규모(육군 보통과 연대, 해상 및 공중자위대 인원 포함)라고 알려져 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센카쿠 유사시에 상륙 및 탈환작전 등 해병대 기능을 수행할 수륙기동단을 3개 연대로 편성하고⁴⁷⁾ 일본 자위대는 수륙기동단을 기존의 육상막료장과 별도로 육상자위대 사령부 조직에 신설될 육상총대 휘하에 두어 육상총대사령관이 각 방면대를 총괄하고 합동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2018년까지 수륙기동단의 편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다.⁴⁸⁾ 주요 장비로는 미 해병대로부터 도입 예정인 AAV-7A1 6대(1개 소대 상륙돌격용)와 오스프리(V-22) 17대, 수륙양용차량 52대(현재 6대 차량은 시험가동 중)를 도입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현재 상륙작전 수송능력을 보면 상륙함정 및 공기부양정(LCAC) 등은 이미 보유 중이며 수송함정 전력으로 헬기모함인 휴우가급(Hyuga) 2척과 이즈모급(Izumo) 1척, 강습상륙함인 오수미급(Osumi) 3척, 유라급(Yura) 2척과 미국 제조 공기부양정(LCAC) 6척, 일본 자체 제작 중형 공기부양정(LCAC) 12척을 보유하고 있다.⁴⁹⁾ 즉, 현재 일본 자위대의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보면 육·공 자위대의 수송기로 324대로 무장병력 약 6,800여 명

44) 이 훈련은 과거 미군 단독으로 훈련을 실시해왔으며 자위대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센카쿠 충돌 대비 미일 합동훈련 실시,” 『연합뉴스』 (2013.6.11).

45) 국방정보본부(2016), p.274.

46) ITX는 29팍스(해병기지)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제병통합기동훈련을 의미한다.

47) 서부방면대 보통과 연대는 제1연대로 바꾸고 그 외에 700~900명 상당의 2, 3연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기적 과정으로 수륙양용준비대를 거쳐 기동단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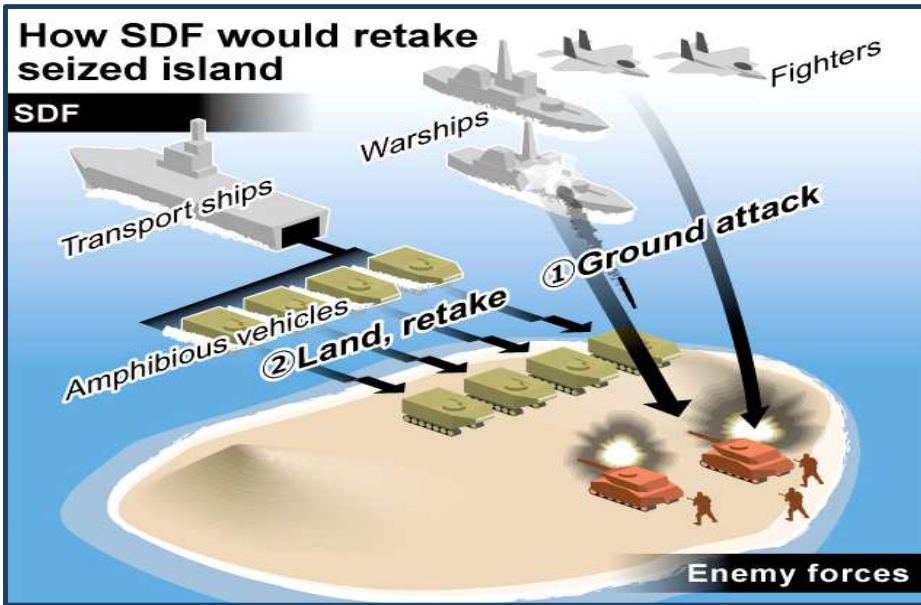
48) “일본 ‘해병대역할’ 수륙기동단 3천명 규모로 창설,” 『연합뉴스』 (2013.10.27).

49) IISS, *Military Balance 2013*(London: Routledge, 2016) pp.252-253. Jane’s fighting ship 2016 http://dtims.mnd.mil:8072/xml/janesxml/reference/jfs/current/jfs_frames_index.htm. (검색일: 2017. 7.23.).

의 수송이 가능하고, 해상 자위대의 항모를 비롯한 27척의 함정으로 헬기 34대 적재 및 무장병력이 약 1000여명 승선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최대 대대(+)급 상륙작전 및 수송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작전개념은 일본의 낙도 및 부속도서(구체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지칭)를 적국이 강제 점령 시 수륙기동단이 상륙작전을 통해 탈취, 회복을 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은 과거 미국과 공동으로 낙도 탈환 훈련을 한 것과 달리 단독으로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를 총출동시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5월 22일 일본 내의 낙도를 실제 활용해 대규모 상륙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를 공개한 목적은 미 해병대의 협조 없이도 일본 자위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센카쿠에 대한 방어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평가되었다.⁵⁰⁾ 일본이 어떻게 수륙기동단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도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⁵¹⁾

<그림 1> 일본 해병대의 도서탈환 작전개념도



50) “일 자위대 뺏긴 섬 탈환하라 사상 최대 훈련,” 『중앙일보』 (2013.11.02); “日 센카쿠 탈환 훈련 공개…중러 합동훈련에 맞불,” 『연합뉴스』 (2014.5.22).

51) “Japan’ new defense guidelines to stipulate amphibious force,” http://ajw.asahi.com/article/behind_news/politics/AJ201310120038. (검색일: 2017.7.23).

다. 수륙기동단 창설을 위한 일본의 노력

2013년 12월 17일 일본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아베 총리가 2013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창설과 국가차원의 안보전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지시한 지 3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를 벤치마킹 한 것인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외교안보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도 유사한 성격으로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중요한 문서임은 틀림없다.⁵²⁾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갖는 의미는 전후 국가체제를 종료하고, 보통국가로서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일본의 의지와 열망은 문서 작성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는 미국과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수립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은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한 국가의 군사력의 증가는 인접국가에게는 군사적 위기감을 상승시켜 오히려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⁵³⁾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최근 공표한 안보 3중 세트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계획은 지역안보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제국주의의 부활 및 보통국가화로 진행을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문서의 포함된 내용도 일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전후 평화헌법의 틀 속에서 유지되어온 안보전략과는 상반⁵⁴⁾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⁵⁵⁾

재집권한 아베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국 안보능력을 확대 및 강화시키고 있으며 발생하는 사건에 수동적으로 대응

52) 고든 나다니엘 레더만(Gordon Nathaniel Lederman) 저, 김동기·권영근(옮김), 『(합동성 강화) 미 국방개혁의 역사』 (서울: 연경문화사, 2002), pp.5-10.

53) Peter Hough(2004), p.4.

54) 박영준, 『제3의 일본』 (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8), p.4.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전후 평화체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보통국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고 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2장 21세기 일본의 대국구상 논쟁 참고.

55) *Japan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17, 2013, http://japan.kantei.go.jp/96_abe/documents/2013/_icsFiles/afieldfile/2013/12/7/NSS.pdf. (검색일: 2017.7.1). NSS의 주요내용은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목표로 정하고 그에 걸맞는 역량과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를 위한 필요한 역제력을 강화하여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고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위협을 격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기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이념을 ‘적극적 평화주의’로 정하면서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외교안보정책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핵심이익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센카쿠 열도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일본은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국가안보의 최종적인 담보는 방위력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해양국가로서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해 전력 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공식화하였다.

일본은 과거부터 안보전략의 근간이었던 방어 중심의 ‘전수방위’ 원칙에서 공격적인 개념으로 발전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고 특히, 중국의 센카쿠 열도 강점에 대비하여 과거에 공격용 무기 및 부대라고 창설을 거부했던 수륙기동단 창설을 공식화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도서에 대한 공격 상황에서 필요한 부대를 신속하게 기동 전개해 해상 및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도서에 대한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탈환하며 이를 위해 수륙양용 작전능력을 새롭게 정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육상자위대 예하에 수륙양용작전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기량을 갖춘 기동부대를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해당 능력을 위해 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⁵⁶⁾ 다시 말해, 일본은 도서방어를 위해 해병대적 성격을 갖는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국가전략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계획을 진행 중이다.⁵⁷⁾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4년에 반영된 일본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송능력과 신속한 전개를 위한 틸트로터(Tilt-rotor)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로 약 10만 달러를 책정하여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작전 초기 헬리콥터를 이용한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상륙작전을 위해 교육 및 훈련에 15억 엔을 투자하고 있다.⁵⁸⁾ 또한 오수미(Osumi)급 상륙함정의 수

56) <http://www.mod.go.jp/j/procurement/index.html>, (검색일: 2017.7.18).

57) 최근에 한국 및 중국 간의 도서영토 분쟁으로 투자형 군대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큐슈와 오키나와를 포함한 2,400여개 도서를 관할하는 서부 방면대 예하에, 2002년부터 서부 방면대 보통과 연대를 창설하여 점령된 섬을 탈환하는 선견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육상 자위대에서 가장 우수한 자위단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고 미·일 도서탈환 훈련인 Iron fist에 참가하여 미군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8) 일본은 미 해병대 전투발전 사령부 소속 연락장교를 활용해 노퍽, 캠프 펜들턴 등을 순회하면서 위탁교육 / 연합훈련 중 인원 및 부대를 방문하여 교육 및 훈련 전·중·후 교환사항, 보완사항

송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개조와 상륙작전을 위한 이즈모함(Izmo)의 건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륙돌격 장갑차 2대를 2013년에 샘플로 구매하여 연구 중이며 2014년에는 지휘 및 통신용 장갑차도 추가로 구매하였다.⁵⁹⁾

요약하면 일본은 국가의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방위계획대강 2013」,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를 통해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미 해상 수송능력 및 장비가 구비된 상황에서 추가로 수륙양용차량과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등을 계획대로 도입하고, 실질적인 수륙기동단 기능을 확충한 서부방면대의 보병과 보통 연대를 수륙기동단 전문부대로 전환, 확장시킨다면 일본의 상륙작전능력 강화는 시간문제이다.

IV. 수륙기동단 창설이 한국 해군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

위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일본 육·해군의 상륙전부대는 일본이란 국가가 세계 열강대국으로 들어서기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해병대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고, 그 훈련 수준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적 행보는 현재 동북아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해군에게 주는 함의는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병대는 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은 공격과 방어의 균형에서 공격 쪽으로 무게의 균형이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동북아에서의 안정적인 세력의 균형보다는 일본과 도서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 중인 국가들을 자극하게 되어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다.

미·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은 현재 명백한 분쟁 단계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

등을 도출하는 등의 상륙작전 전담부대 준비를 위한 임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한국 해병대 운용 전력 관련 사항에도 연구 중이다.

59) "Defense Program and Budget of Japan; overview of FY2014 Budget," http://www.mod.go.jp/e/d_budget/pdf/260130.pdf. (검색일: 2017.7.30).

다.⁶⁰⁾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분쟁 양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독도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시점에서 해상투사전력인 공세적 성격의 수륙기동단의 창설은 주변국들에게 의구심과 오인에 의한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고⁶¹⁾, 이것은 곧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 또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⁶²⁾

②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증대시킬 것이다. 상륙작전은 자국의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전력보다는 전력 투사를 통해 공격 및 방어하기 위한 전력이기 때문에 주변국들로 하여금 단순히 자국의 영토 방어나 재해·재난 시에만 활용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륙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병력과 지원화력, 해상전력, 공중전력 등 복합적인 전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미 2013년 예산에 수륙양용차 4대의 획득예산이 반영된 바 있고, 중기방위계획에 총 52량의 수륙양용차 획득방침이 포함되었다. 일본의 이같은 공세적인 전력의 도입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③ 일본은 2018년 수륙기동단 창설을 계기로 원거리 도서지역이나 해외파견을 위한 전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다. 일본은 2002년 낙도방위를 위해 사세보에 1,000명 규모의 서남방면 보통과 연대가 창설되었지만, 이 부대는 곧 수륙기동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의 국제평화협력유지대, 해상자위대가 보유하는 1만4천톤을 상회하는 헬기탑재 경함모 4척, 항공자위대의 수송전력 및 공중급유기 등은 자위대의 원거리 투사능력, 해외파견능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전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중전의 소말리아, 남수단 등지에서 실시해왔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거리 투사능력과 관련하여 일본이 그동안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과 관련하여 보유를 금지시해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등의 무기체계 보유 자산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④ 일본은 수륙기동단 창설을 통해 단기간에 상륙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

60) 정광호(2013), pp.138-139.

61) Robert Ayson · Desmond Bell, "Can a Sino-Japanese War Be Controlled," *Survival*, Vol. 56, No. 6 (2014, Dec.-Jan.), pp.135-136.

62) 최근 미국의 RAND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일본이 중국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군은 일본에 비해 군 조직과 구성원의 질적인 측면에서 낮고, 병사와 장교들의 낮은 훈련수준, 무기의 수준 저하 등으로 일본에게 패배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Michael S. Chase et al,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Santa Monica: RAND, 2015), pp.20-21.

을 것이다. 태평양 전쟁 전 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상륙작전 능력을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패전 이후 상륙작전 수행의 맥은 단절되었으나 자체적으로 상륙작전을 위한 교리와 무리, 장비(함정, 주정)를 개발하고 발전시켰던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요소들에 비해 과거 상륙전 운용 경험은 향후 일본이 열도를 벗어나 국가이익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도서방어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서방어·탈환은 자위대에 있어서 가장 가혹한 작전, 즉 합동성을 발휘해야만 하는 작전이다. 과거의 전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방어·탈환을 위해서는 충분한 항공우세 및 해상우세가 필수적이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상전투력의 투입도 필요한 작전이다. 과달카날 공방전(1942), 포클랜드 분쟁(1982)은 모두 주기지 및 본토로부터 이격된 지역에서 제해권 및 제공권을 획득한 측이 지상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 결과적으로 도서를 탈환했다.

도서방어·탈환이라는 것은 해상자위대에 있어서 대공전, 대잠전, 대함전, 대기뢰전, 전자전, 정보전 등 모든 능력을 투입하는 통합전이다. 통합운용의 관점에서 항공자위대 및 육상자위대와의 합동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과달카날 공방전에서도 육해군의 합동운용이 가장 중요했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 원거리에 대한 신속한 기동 전개도 커다란 과제인 것이다.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이격된 해역에 대한 도서방어작전의 실행은 평소 도서기지 및 유사시 해상기지의 설정, 이를 위한 해공수송능력 및 호위능력의 강화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리고 도서방어작전의 핵심인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그 시발점인 것이다.

⑥ 수륙기동단 창설을 통해 일본 영토와 영해에 가해질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기동성있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전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기존에는 지역배치의 특성을 보였던 육상자위대의 주요 부대들이 대거 3개 기동사단 및 4개 기동여단으로 재편되면서 국토 중심이 길고, 도서 지역이 많은 일본 어디에서나 유사 상황 발생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된 점이다. 신규 증강될 99대의 기동전투차량은 이러한 기동사단 및 여단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신설된 육상자위대의 중앙즉응집단도 이러한 즉응전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방위계획대강은 육상자위대의 각 방면대를 통할하는 통일사령부 신설 방침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동사단 및 중앙즉응집단은 신설된 육상자위대 통일사령부의 지휘체계 하에 들어갈 것

으로 보인다. 해상자위대도 기존에 존재했던 5개 지역배치함대가 2010년 이후 4개의 기동함대 체제 하에 재편되었다.

V. 결론

탈냉전기 이후부터 아베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규범 및 전략, 방위비, 실제 육·해·공 자위대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전의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적 경향은 약화되고,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잠재적 위협에 대해 쓸 수 있고, 해외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세적인 보통국가적 군대로서의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증강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된 ‘통합기동방위력’의 실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성하는 핵심전력이 수륙기동단의 창설이다.

일본은 과거 미 해병대보다 우수한 상륙전부대인 해병대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특이점은 육군과 해군이 독자적으로 상륙전력을 운용하였다는 것이다. 상륙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역할은 해군이 주가 되어 실시해 왔으나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 되는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이 동일하게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를 운용했었다. 한편, 육·해군에서 운용된 상륙전부대는 독립된 군종으로서 운용되기보다는 각 군에 종속되어 운용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과 발전에 제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본이 창설하고자하는 수륙기동단은 합동작전의 능력이 강화된 성격을 가질 것이다. 육상자위대에 수륙기동단을 편성하고 해상자위대가 이들을 투사시킬 수 있는 해상 전력을 확보하는 형태의 합동작전 운용능력을 갖춘 수륙기동단이 창설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은 일본 방위전략의 공세적인 변화를 구체화해주는 실체이다. 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는 전략의 스펙트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다. 현재 한국의 군사전략의 중심은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맞춰져 있다. 즉 북한이라는 북쪽에서 오는 위협의 한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동·서·남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위협에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일본은 해병대를 증강 또는 창설예정이고, 한국은 해병대를 감축예정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은 한국 해군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독도방어작전’이 있다면 일본 또한 ‘도서방어작전’이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 상륙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첫발은 수륙기동단이 되지 않을까? 직접적인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에 포위된 한국 해군이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훈상, 『패러다임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지식과 감성, 2013).
- 국방정보본부, 『2016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6).
- 박영준, “일본 군사력의 평가: 동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서의 행보.” 『新亞細亞』 (2015).
- _____,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2014).
- _____, 『제3의 일본』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8).
- 손경호, “일본의 2010 방위계획대강 개정의 방향과 함의,”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 정광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토분쟁; C.R. Mitchell의 분쟁구조 이론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學論集』 (2013).
- 최정준, “일본의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과 수륙기동단 창설의 함의.” 『軍史』 제97호 (2015).
- Ayson, Robert and Bell, Desmond, “Can a Sino-Japanese War Be Controlled,” *Survival*, 2014.
- Alexander, Joseph H., *Storm Landing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 Beilstein, Christina W., *Japanese Naval Vessels at the End of World War II*.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 Chase, Michael S. et al.,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Santa Monica: RAND, 2015).
- Evans, David C. and Peattie, Mark P.,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n the Japanese Navy, 1887~1941*(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 Evera, Stephen Van.,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1998.
- Falk, Stanley L., “Organization and Military Power: The Japanese High Command in World War II,”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961.
- Feifer, George, *The Battle of Okinawa: The Blood and The Bomb*. Guilford(CT: The Lyons Press, 2000).
- Hough, Peter, *Understanding Global Security*(New York : Routledge, 2004).
- IISS, *Military Balance 2013*. London: Routledge, 2013.
- _____. *Military Balance 2014*. London: Routledge, 2014.
- Jane’s Defense Weekly*. Vol.51, Issue 7. 2014.
- Goldman Justin, “An Amphibious Capability in Japan’s Self-defense Force:

- Operationalizing Dynamic Defens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6, No. 4, Autumn 2013.
- Lederman, Gordon Nathaniel. 김동기, 권영근 역. 『(합동성 강화) 미 국방개혁의 역사』. 서울: 연경문화사, 2002.
- Levy, Jack S., “The Offensive/Defensive Balance of Military Technolog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84.
- Millet, Allan R.,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N.Y.: Cambridge Univ. Press, 1998).
-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1978.
- Tepperman, Jonathan, “Japan is Back : A Conversations with Shinzo Abe,” *Foreign Affairs*(July/August, 2013).
- The US DoD Directive, No.5100.1. August 1, 2002.
- 山口喜代公, 「日本海軍陸戰隊史」(東京: 大新社, 1943).

Abstract

An Offensive Change of Japan's Defense Strategy and Strategic Implication to the South Korea Navy: Focusing on the Japan's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Creation

Jung Gwang-Ho*

After defeat in World War II, Japan's Peace Constitution committed the country to forego the acquisition of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However, in the midst of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began to change its security posture in line with the so-called 'normal state theory', which called for a more robust defense posture and expanded security activities.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omoted these security policies by issu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well as a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NDPO) in 2013 and by establishing new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Abe administration also adopted the new concept of a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in the 2013 which replaced the 'Dynamic Defense Force' as a new criteria for the Self-Defense Force's acquisi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In this new concep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Ground Self-Defense Force is planning to replace existing divisions with mobile divisions and to form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dge' for the first time in 2018, which has long been taboo in Japan. Japan has experience a Marine Corps in the past. Likewise, an offensive changes in the military strategy can change the spectrum of strategy and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dge' plays a big role in this. Furthermore, Japan is increasing the Coast Guard's budget and

63) Lieutenant Commander, Ph.D. in Military Strategy, Office of DNCO for Planning & Management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contingencies around the Senkaku islands (called the Diaoyu in Chinese). The South Korea navy should utilize Japan's changing security posture to deter immediate threat such a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potential enemy threat such as China, Japan, Russia.

Key Words : Defense Strategy,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Dynamic Defense Force,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dge

논문접수: 2017년 9월 2일 | 논문심사: 2017년 11월 15일 | 게재확정: 2017년 12월 12일